

‘남북한 공통국어’ 교육 내용 선정의 쟁점과 과제 —초등 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진선희 대구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이 논문은 제70회 국어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2019.12.7.)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2019학년도 대구교육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I. 머리말
- II. '남북한 공통국어' 교육의 방향 탐색
- III. 초등 문학 교육 내용 선정의 쟁점과 과제
- IV. 맺음말

I. 머리말

통일시대의 '남북한 공통국어'의 의미역을 점검하기 위하여 우선 '통일'의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통일교육원은 '통일'을 '국토를 분단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반 위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으로 설명하며 국토의 통일, 정치적 법적 체제의 단일화, 경제적 통합, 사회문화적 공동체를 수립하는 일로 본다(통일교육원, 2019: 9-12) 물론 통일 과정의 평화·변영과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통일'은 언어로 기술된 것과 달리 그리 간단하고 명료하지는 않다. 통일교육원(2019)의 '통일' 의미에 포함된 그 많은 변수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단숨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70년간의 극한 대립과 분단을 겪어온 남북한이 '정치적·법적 체제의 단일화를 이루는 일', '사회문화 공동체를 이루는 일', '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일' 세 가지만 놓고 보아도 긴 시간과 노력의 과정이 요구된다. 가장 큰 전제인 '평화적' 통일의 과정을 상상해보면, 남북이 '통일'을 합의하고 선언하더라도 정치적 법적

체제와 교육과 문화와 경제의 통합 방식에 대한 지난한 노력과 조율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 또 인위적 통합이 가져오는 예상치 못한 충돌과 혼란을 겪어내는 과정이 지난 뒤에야 진정한 통일국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의 남북 및 세계의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이 독일식 흡수 통일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통일의 대전제는 ‘평화’임을 감안하면 남북의 대표들이 대화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간단치 않아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남한과 북한은 서로의 타자성을 완전히 인정하면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는 통일국가를 준비하면서 남북한 언어공동체가 국어교육의 통합을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되지 않도록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진정한 통일국가를 이루는 과정인 통일교류기에 남한과 북한이 활용할 ‘남북한 공통국어’(이하, 줄여서 ‘공통국어’로 칭함)라는 교과를 상정한다. 그 교육 내용¹⁾ 선정을 위해서 미리 점검하여야 할 쟁점과 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공통국어 과목의 의미와 성격을 분명히 하고, 통일국가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국어교육의 방향을 탐색한다. 그에 따라 ‘공통국어’ 교육 가운데 초등 문학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그 쟁점과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II. ‘남북한 공통국어’ 교육의 방향 탐색

1. ‘공통국어’ 과목의 의미와 성격

‘공통국어’는 완전한 통일 이후가 아니라 통일이 되는 과정의 어느 시점

1) 여기서 ‘교육 내용’은 문서로 고시되는 교육 내용의 범주 중심으로 하되 그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가르칠 내용으로서 제재 등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에서부터 남한과 북한이 각각의 국어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공통으로 진행하는 국어교육이라는 성격을 가진 교과목이다. 이는 기존의 남북 각 교육과정 에 따라 국어교육을 진행하되, 통일시대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미리 대응하 기 위하여 남북한 ‘공통국어’ 과목을 마련하여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 일교류기, 즉 ‘C.통일탐색기’와 ‘D.통일준비기’에 필요한 국어교육을 위한 교과목이 ‘공통국어’이다.²⁾ 실제 통일의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이 얼마나 될 지는 알 수 없으나 현재 상황에서 비추어 보면 상당히 긴 시간이 될 가능성 이 크다. 물론 통일의 구체적 방식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이를테면 연방제 통일 방식일 경우- ‘E.통일’기에도 활용될 수 있다.

‘공통국어’ 과목의 가장 큰 특징은 정치적·법적 분단 상태에서도 우리 말과 글을 사용하는 남한과 북한이 공통으로 언어 교육을 하며 더 완전한 통 일과 화합을 준비하기 위한 교과목이라는 점이다. 이는 현재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정치이데올로기를 각각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언어 사용과 문학과 문법 등 국어교육 내용을 공통의 설계와 교육 실천으로 이어나감으로써 갑 작스런 통일로 빚어질 충돌과 혼란의 줄이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 더욱 중 요한 것은 언어를 중심으로 하는 공통국어 과목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사회 문화적 교류와 상호이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그렇더라도 ‘공통국어’ 과목은 이데올로기를 완전히 삭제한 교과목이라

2) <표 1> 평화적 남북통일의 의미와 과정 고찰을 위한 단계별 특징 정리

분단		통일		
A. 냉전과 대립	B. 분단 교류기	통일 교류기		E. 통일
		C. 통일탐색기	D. 통일준비기	
• 전쟁 • 적대 행위	• 인도적 교류 • 문화적 교류	• 정치적·법적 분단 • 사회문화적 교류(관광, 왕래의 자유 포함) • 인도적 교류 • 약한 경제적 교류	• 정치적 법적 분단 • 정치적 법적 통일 준비 • 경제적 교류 • 경제적 통합 준비 • 인도적 교류 • 사회문화적 교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통합

고 보기는 어렵다. 최대한 현재 남한과 북한이 지향하는 정치이념적 충돌 부분은 삭제할 수밖에 없겠지만, 상호 인정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남북한 공동국어’ 과목은 통일이 과거 분단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새 과업임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미래지향적 공통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남북이 하나 된 ‘통일국가’로서 처하게 되는 세계의 상황을 바르게 인식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또 우리말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가치를 실현할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완전한 통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국어능력과 세계 속에서 한반도 통일국가 시대의 삶에 필요한 국어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 목표와 내용을 설정하고 지향할 것이기 때문이다.

2. 통일국가시대 국어교육의 방향 탐색

남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우리나라를 ‘통일국가’³⁾로 부르기로 한다. 지금 현재에도 그러하지만 ‘통일국가’는 언어공동체이다. 남한이나 북한이 모두 ‘국어’를 사용하고 있기에 현재에도 의사소통에서 통역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의 단절로 언어 사용의 관습이나 언어문화의 차이가 있고, 양자 간의 소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오해 등 미세한 충돌이나 장애를 경험하게 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언어의 의미 변화에 따른 충돌은 단순히 언어의 문제만이 아니라 바로 삶의 가치관과 사회·문화적 양식의 차이나 변화에서 오는 문제로 봄이 온당하다. 남한과 북한의 삶의 양식 자체가 ‘개인중심 대 집단중심’이라는 가치관의 큰 차이를 바탕으로 하며, 이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 차이로 드러나기도 한다.

공통국어 교과의 내용 선정은 통일국가 시대의 삶의 맥락 변화와 그에

3) 국회에서 최종 결정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통일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완성의 3단계를 주요 골자로 한다.

따른 국어 교육의 목적이나 목표 등 방향에 의존하게 된다. 여기서는 통일국가 시대라는 삶의 맥락에서 우리 국어교육이 특별히 강조하여야 할 국어능력으로서 역량을 살펴서 공통국어 교과와 초등 문학교육 내용 선정의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로 한다.

1) 우리말글 공동체로서 새 문화 창조를 위한 국어능력

통일국가는 분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남한과 북한이 분리된 상태에서 다시 통일국가를 이루는 일은 곧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삶의 변화에 단일공동체로 대응하고 협조하며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권리를 누리는 새로운 공동체로서의 문화 창조력을 갖추는 일이다. 그에 따라 ‘통일국가’의 ‘국어교육’은 세계 여러 국가들 가운데에서 우뚝 선 단일공동체이자 지구촌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일원으로서 책무와 권리를 가질 개인의 국어능력을 기르게 된다. 통일국가 시대의 국어교육은 바로 세계 속의 개인에게 필요한 국어 수행과 국어 문화 창조에 기여하는 미래 세대 교육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세계 공통의 문제 해결에 앞장설 수 있는 사고력과 창의력,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평화역량, 세계 여러 문화의 빈번한 접촉에서 비롯되는 다문화적 감수성과 상호문화역량 등 국어교육이 학습자에게 길러주려는 ‘국어능력’의 범주와 내용의 지향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통일국가 시대 국어능력은 세계 공통의 문제해결과 관련된 사고력이나 창의력, 평화역량과 상호문화역량 등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관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또 공통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이러한 능력을 길러줄 수 있을지 탐색하여야 한다.

현재 남한의 국어과 교육과정은 ‘대강화’ 제시의 특징을 보임(주재우, 권순희, 강보선, 정진석, 2017)으로써 교육 실행의 자율성을 확대하였으나 언어수행의 맥락과 내용과 방법의 긴밀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교육과정 문학 영역의 경우 장르 형식을 제시하지만 결코 문

학 작품의 내용 선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과가 특정 이데올로기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의 제재 선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삶의 상황 맥락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일일 터이다. 문학 영역 뿐 아니라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에서도 담화 수행의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있어, 언어 수행 맥락 및 내용에 대하여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기술하고 있다. ‘대화’, ‘토의·토론’, ‘인사’, ‘발표’ 등의 담화 형식이 제시되지만 구체적인 삶의 맥락의 다양성에 대해서 교육과정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세계의 변화에서 요구되는 국어능력의 변화를 담아내기 힘들다.

이는 바로 현재 남한의 국어과 교육과정이 삶의 맥락과 세계 변화에 따른 교육 내용 변화를 포착하고 표현해내기 어려운 교육과정이라는 점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이는 통일국가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의 맥락이 크게 변화되어 갈 때 그 변화를 반영하는 ‘공통국어’ 교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할 부분이 바로 대부분 삶의 내용 차원 및 맥락 관련 국어능력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한편, 현재 북한의 소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매우 소략하긴 하지만 소학교의 ‘국어’에서 다루는 언어의 구체적인 내용 면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에서 보듯 북한의 소학교 국어과 ‘교수목적’에 드러난다.

우리말과 글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김정일애국주의정신을 심어주고 다정다감한 정서를 키워주며 우리 말과 글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초보적인 언어실천능력을 갖추어줌으로써 초급중학교 국어교육을 원만히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데 있다

(교육위원회, 2013: 55, 밑줄은 저자 강조)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이 짧게나마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김정일애국주의정신’, ‘다정다감한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데 비해 남한의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는 ‘성격’, ‘목표’항에 구체적인 맥락이나 삶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이는 공통국어 교육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통일국가 시대를 준비하고 교류한다는 점에서 삶의 맥락 변화를 짚어내고 그에 알맞은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공통국어 교육과정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이다.

통일국가 시대 개인의 사회문화적 삶의 변화에 부응하며 세계 속의 우리말글 공동체로서 새 문화 창조를 위해 개인과 사회에 필요하고 분단시기에 비해 더 강조되어야 할 역량을 ‘창의적 사고 역량’, ‘평화 역량’, ‘상호문화 역량’으로 설정하여 탐색하기로 한다.

첫 번째 ‘창의적 사고 역량(creativity capacity)’은 ‘공통국어’ 교과와 주요 내용으로 설정하기 위해 그리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 남한의 국어과 교육은 국어능력 가운데 ‘사고력’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있고 북한에서도 소학교 국어 교육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소학교 국어과 교육과정 머리말(교육위원회, 2013)에서 ‘국어 과목은 학생들에게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지식과 언어 실천 능력을 갖추어주고 사상교양과 정서교양을 실현할 뿐 아니라 사고력을 키워주는 학과목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통일국가 시대의 개인과 사회가 이어갈 삶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의 통일국가로서 인류의 삶과 문화에 기여하는 우리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일이다. 세계가 안고 있는 여러 과제를 함께 해결하며 우리 사회와 문화를 전승하고 창조하는 데에 필요한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일은 사고 교과로서 국어교육이 마땅히 담당하여야 할 부분이다.

두 번째로 ‘평화 역량(peace capacity)’이 공통교과와 주요한 내용으로 강조 되어야 한다. 오랜 대립과 분단으로 서로를 알지 못하였던 남과 북이 통일국가를 이루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평화이기 때문이다. ‘평화 역량’이란 삶의 여러 차원에서 ‘서로를 살리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평화를 창조하는 능력’(박보영, 2009: 84)을 말한다. 통일국가의 새 문화 창조에서 단순히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나 갈등 ‘관계’를

‘대화’, ‘타협’,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현재 세계는 다문화적 충돌과 갈등과 전쟁으로 인간 간의 폭력이 난무하고,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이라는 이름의 폭력으로 자연과 환경이 파괴되어 오히려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생태계 파괴, 기후 변화, 사막화 등 세계에 산재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통일국가의 문화 창조 능력으로 평화 역량이 필요하다.

공통국어에서 강조하여야 할 교육 내용으로서 평화역량에는 국어교육적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박보영(2009: 86)이 제시한 평화역량의 하위 차원들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평화역량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자신에 대한 수용, 자긍심, 자아실현을 위한 배움의 능력’, ‘타인과의 관계에서 관용과 공존, 평화적 의사소통의 능력’,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참여와 자치, 비판의 능력’, ‘자연과의 관계에서 소비주의 극복과 생태계 보존의 능력’으로 제시하였다. 이후 보다 깊이 있는 탐색이 이루어져야겠지만, 국어교육은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를 모두 다루는 사고와 소통과 문화와 정체성, 그리고 정보를 다루는 언어 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교과라는 점에서 평화역량을 기르기 위한 주요 교과가 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상호문화역량(Intercultural capacity)’ 또한 통일국가시대에 필수적이고 강조되어야 할 능력이다. 남한은 이미 다문화국가를 선언하였고 이후 통일국가시대는 남북의 거대한 주류 문화 간의 융합이 예상되므로 상호문화의 가치관이나 이해 및 표현 능력과 태도는 그 어느 때 보다 더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이다. 상호문화역량은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할 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열을 가리지 않으며 차별하지 않는 능력이다. 이를 위하여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소수의 문화나 열등한 문화로 판단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교류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하여 통합을 이루는 힘을 길러야 한다.

문화 교과를 자부하는 국어과 교육은 남북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문화에 대해 상호이해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제 공통국어 교육은

그동안의 다문화 사회 교육의 경험을 확대하고 통일국가시대를 맞이하여 남한과 북한의 거대한 주류문화의 융합과 상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상호문화역량을 기르는 데에 힘써야 한다. 현재 북한이 다문화 사회인지는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국제사회와의 교류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은 남한에 비하여 취약할 수 있다고 보기에 더욱 그러하다.

공통국어 교육 내용은 통일국가시대의 삶의 맥락에서 필요한 국어능력을 기르기 위해 강조할 사항을 깊이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우선 통일국가 시대에 강조되어야 할 역량을 선정하고, 국어교육적 내용 요소와의 관계를 치밀하게 구체화하여 교육 내용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세계 속의 우리말 공동체 ‘통일국가’의 국민으로서 지향할 교육 내용인 세계 평화와 번영, 문화의 전승과 창조 및 다양성 존중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현하는 능력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은 통일시대가 특별히 추구하는 가치이지만 한 것은 아니다. 이는 현재 남한에서 이미 지향하고 있는 가치이다. 물론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내어 강조하고 있는 않지만 ‘통일국가’ 시대에는 세계 속의 우리말글 공동체의 문화 창조를 위한 역량이 국어과 교육 내용 설정의 방향으로 더 구체화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2) 남북의 문화충돌 완화를 위한 국어능력

‘통일국가’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더라도 언어공동체라는 점은 명확하다. 다만 그 언어공동체 내에서 소통과 왕래가 단절된 70여 년의 간극이 있고, 그것에서 비롯되는 언어 사용의 미세한 괴리로 인한 문화 충돌이 전혀 없을 수 없다. 아무리 미세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일지라도 미리 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이미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호소하는 어려움만으로도 통일 과정이나 통일국가 시대에 발생할 문화 충돌은 필연적이고 어느 정도 예견되는 일이기에 이를 극복하는 힘

을 기를 필요가 있다.

관점에 따라서는, 문화적 충돌 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소통 능력과 이해 능력을 길러갈 수 있다면 문화적 부딪침은 새로운 능력을 기를 기회가 될 수 있다. ‘통일역량’은 통일국가시대를 평화와 번영으로 이끌어갈 힘이다. 남과 북이 서로 이질적 문화 충돌 상황에서 원만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는 것, 전혀 다른 가치와 문화의 공존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능력, 오해와 충돌의 상황에서 인내하며 이질성 속에서도 동질성을 발견하거나 평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음성언어와 문자언어의 의사소통 능력, 우리말 글에 대한 애정과 효율적 활용, 표준어와 문화어의 존재에 대한 인정, 그 각각의 언어 표현 관습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사례들에서 보듯 언어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문제를 넘어 개인 간의 신뢰 등 관계의 문제, 개개인의 정체성의 문제로 확대된다. 공통국어 교육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다루어야 하는 이유이다. 국어사용 자체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있겠고, 국어로 이해되고 표현되는 가치관과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남과 북의 오랜 대립으로 누적되어온 개인적 적대심이나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 남북의 분단과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식민지 시기 등 오랜 시간 누적되어온 적대 관계로 인한 상처와 오해와 분노의 정서 등 치유해야 할 관계가 존재한다. 특히 분단의 시간 동안 상호 적대시 하는 교육을 받은 학생의 내면에 발생할 가치 및 정서적 혼란의 문제, 식민지 시대부터 이루어진 이산과 분단으로 인한 이산 문제, 상봉 가족 내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 등 개인과 개인, 개인과 가족, 가족과 가족, 단체와 단체 사이의 상처에 대한 치유가 필요하다. 특히 적대감과 가치의 충돌에서 빚어지는 심리적 억압이나 방어기제 등 정신적, 정서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될 수밖에 없다.

공통국어과 교육은 이러한 통일 역량을 확대하는 국어 능력을 길러야 한다. 통일국가시대에는 전혀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경험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만나고 소통하고 교류하며 함께 일하고 함께 사회와 문화를 전승하고 창조하며 살아가야 한다. 통일국가시대에 맞는 구체적인 맥락을 담은 의사소통 능력, 문학 능력, 문법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공통국어 교육 내용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III. 초등 문학 교육 내용 선정의 쟁점과 과제

1. 요구되는 역량의 초등국어교육적 편성

현행 남북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은 주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중심으로 한 언어 수행의 담화 및 형식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앞에서도 논의한바 이러한 특성은 탈이데올로기적 교육 내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립적이기에 남한과 북한의 이데올로기 차이를 극복하는 데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통일국가시대에 개인과 사회에게 요구되는 국어능력은 결코 사회문화적 가치나 맥락의 문제에서 무관한 것일 수만은 없다. 결국은 서로의 다른 가치관이나 문화를 직시하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만 하는 시대에 필요한 국어능력을 찾고 기르기 위한 공통국어의 교육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기존의 남북 각각의 국어교육 내용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치밀한 담화 내용 및 맥락 차원의 교육 내용을 함께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언어 수행의 맥락 변화 및 가치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형태의 기존 국어과 교육과정에 익숙한 남한과 북한이 모두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매우 조심스럽게 상호문화역량과 평화역량과 통일역량을 강조하는 국

어지식과 기능과 태도를 탐색하고 교육 내용을 편성하여야 한다.

특히 앞에서 논의한 통일국가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강조하여야 할 상호문화역량, 평화역량, 통일역량 관련 교육 내용은 문화적 다양성이나 평화와 화합이라는 세계의 변화에 따른 요구로 인하여 새롭게 부각되는 가치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담화의 형식만을 담은 대강화된 기술로 표현하기 어렵다. 또 국어 수행과 관련된 삶의 맥락이 거의 제시되지 않는 교육 내용 기술로는 구체적으로 드러내어 강조하기도 어렵다.

이는 남한이나 북한이 각각의 현행 국어교육 내용에서 거의 대부분 구성원이 지향해온 암묵적 사회문화적 합의에 기대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던 교육 내용을 통일국가시대를 위한 공통국어 교육 내용에서는 훨씬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탐색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테면 초등에서 아동문학의 제재 선정의 문제나 대화나 토의·토론 등의 구체적 상황맥락, 가치관이나 보는 관점이 다른 사람들 간의 평화적 문학 작품에 대한 대화나 토의·토론의 중요성, 의사결정과 그 실행 방법, 글쓰기에서 다양한 독자를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이나 그 실행 방법 등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교육 내용의 질과 양 면에서 더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통일국가시대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이 필요하다. 앞 장에서 매우 소략하게 네 가지 역량을 제안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국어능력 요인들을 추출할 필요가 있다.

때에 따라서는 국어교육이라는 기존의 교과 범주 및 경계를 넘는 내용들과 접목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공통국어 교육 내용은 남북통일이라는 문화적 차이가 큰 거대한 주류 문화 간의 만남과 융합·상생을 준비하는 교육 목적에 맞추어 더더욱 교과의 경계를 확장하거나 융합하는 특성을 보일 수밖에 없다.

2. 아동문학 제재 선정

문학 영역에서 남북한 공통 초등 국어과 교육 내용의 제재 선정 문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문학의 특성상 남북의 이념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초등 공통국어 교육에서 아동문학 제재를 이념의 문제로만 바라보고 판단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잃는 일이 된다. 문학의 총체성이나 교육성, 문학이 담고 있는 문화적 특성은 모두 남과 북의 간극을 메우고 하나를 이루어 변영할 수 있는 상호문화역량과 평화역량이나 통일역량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에 매우 유용한 교육 내용이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한 모두 초등 국어과 교육 내용에는 제재 선정의 기준이나 방안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정치, 사회, 문화적 동질 집단 내에서 제재 선정의 기준에 대한 견해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일국가를 준비하는 공통국어 교과에서는 제재 선정의 기준 설정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졌었고 그것이 어떤 가치관이었는가에 대해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야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이를테면 남한의 어린이가 북한의 어린이가 읽어온 북한의 동화나 교과서에 실린 글들이 무엇이었는지 몰라야 한다거나 북한의 어린이가 남한의 동화나 교과서 작품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이는 서로를 이해하고 상호문화역량이나 통일역량을 키워나가는 데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진정한 통일은 이미 살아온 삶의 진실을 직시하는 일에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교육적 차원에서 언제, 어떤 상황이나 시기에,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그것을 바라보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한 연구가 더 축적되기를 바란다.

우선 초등학교 공통국어 교육 내용 선정에서는 남과 북이 서로의 아동 문학 작품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교류하고 협의하며 공통국어 교과와 제재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문학을 정치체제 선전의 도구로 활용하여 왔기에 북한의 문학 작품은 강한 이데올로기 도구적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를테면 북한의 소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동시 중에는 북한의 정치 지도자가 직접 지은 동시, 혹은 등장하는 동시가 많다.⁴⁾ 남북 공통국어 교과에서는 제재 선정의 기준을 마련하여 이런 내용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주체문예이론⁵⁾은 동시에 비하면 동화에는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으며 더욱이 어린 아이들의 이해 수준에 맞추다보니 주체사상이 동화의 표면에 드러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북한의 주체문예이론과 남한의 아동문학 창작 이론 및 그것을 바탕으로 한 남과 북의 아동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 성과가 공통국어 교육 내용 선정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현재로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제재는 분단되기 이전의 아동문학 작품이다. 즉 일제강점기인 아동문학의 근대적 형성기 작품과 그 이전의 전래동요나 전래동화 등 분단 이전의 아동문학에 대한 연구 축적이 필요하고 그 성과의 활용이 비교적 용이하다.⁶⁾ 남북 각 지역별 전래동화나 전래동요에 대

4) 고추코 솔잎눈/뚝보논사람/즐거운 설날아침/어쨌서 자꾸 옷나//동무동무 떨쳐나/설놀이 하는/우리 웃음 우리 기쁨/더해주며 자꾸 옷나//원수님 사랑님친/설명질 너무 좋아/눈사람 저도야/입벌리고 하하하(북한 소학교 3-1 국어 교과서, 2014: 139, 진한글씨는 저자 강조).

5) 문학예술의 창조와 수용과정에서 주체사상의 요구를 일관되게 따르는 이론.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론의 기반위에서 북한식 변개를 보인 것으로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의 3가지를 작품 평가 기준으로 본다. 당성은 조선노동당의 이념을 작품에 구현해야 한다는 것, 노동계급성은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작품에 대변해야 한다는 것이며, 인민성은 작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체문예는 사회주의 리얼리즘과 달리 특유의 문예관과 창작 방법을 드러낸다(다음백과, 주체문예이론, 검색일자 2019. 11. 22).

6)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 내용은 진선희(2019)와 진선희(2016) 참조.

한 연구 성과가 공통국어 교육 내용 선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남북의 이질성 앞에서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이면서 또 동시에 분단 이전의 작품에 대한 현재적 미래지향적 해석과 향유로 문화를 전승하며 새롭게 창조하는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 남한과 북한이 분단의 대립 속에서도 서로 교류한 아동문학 작품들이 있다. 북한에 남한의 아동문학 작품이 소개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남한의 TV드라마가 북한에서 시청된다는 이야기는 많지만-, 남한에는 북한의 아동문학 작품이 다수소개되었다. 남한에서 출간·유통되어온 북한 아동문학 작품⁷⁾이 공통국어 교과서의 제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북한 아동문학 중에서 백석의 동화시는 이미 남한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어 남북 공통국어 과목의 제재로 선정되기에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또 남과 북이 함께 제작한 아동문학 작품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 <뽀로로>는 처음에 남북합작으로 탄생한 만화영화이다. 이 외에도 북한의 애니메이션은 유튜브를 통해 남한에서도 볼 수 있기에 공통국어의 제재로 선택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공통국어에서는 남북합작 아동문학 작품의 창작 과정을 포함하여 내용 선정 및 교과서 제작을 기획할

-
- 7) 연구자가 확인한 남한 출판사에서 공식 출간한 북한 아동문학 도서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병규·김용희·송재찬·이재철 엮음(2006), 『광복60년동안 가장 빛나는 남북한 창작동화1~3』, 서울: 효리원, (17편)
 김용희 외(2003), 『북한 어린이가 보는 그림동화집』, 서울: 삼성출판사, (8편)
 리원우(2015), 『도끼장군』, 서울: 여유당.
 박영규(2001), 『북한동화모음집』, 발행지:서울 행림출판, (10편)
 이상배 글/백명식 그림(2018), 『북한 전래동화』, 발행지:서울 좋은꿈, (17편)
 이재복 엮음(1992), 『김점지의 매주콩』, 서울: 도서출판 산하, (33편)
 이재복 엮음(1992), 『다 타고난 재주가 있지요』, 서울: 도서출판 산하, (9편)
 이재복 엮음(1992), 『이 고집쟁이 좀 보세요』, 서울: 도서출판 산하, (9편)
 이재복 엮음(1992), 『작다고 깔보다 큰코 다쳐요』, 서울: 도서출판 산하, (9편)
 이재복 엮음(1992), 『친구 없이는 못살아』, 서울: 도서출판 산하, (9편)
 한설야(2013), 『금강선녀1~2』, 서울: 여유당.

수도 있겠다.

남북한 서로에게 소개되지 않은 창작 아동문학 가운데 남북의 협의에 따라 공유할 수 있고, 상호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 특별히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널리 공감되었던 유명한 작품을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여 상호문화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재로 선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모든 경우의 제재 선정에서 중요한 것은 창의적사고역량, 평화역량, 상호문화역량, 통일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작품인가 하는 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3. 아동문학 장르 용어 및 문학교육 용어

원칙적으로 북한 아동문학의 내용은 주체사상⁸⁾을 배경으로 하여 주체 문예이론⁹⁾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작품인가에 의해 평가된다. 그런데 이를 테면 북한 아동영화의 경우는 아동의 나이와 심리적 특성에 맞추어 창작하

8)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 관한 이론적·방법론적 전일체계’로 정의되고 있다. 주체사상은 1972년 12월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에서 공식 통치이념으로 규정되었다. 김정일에 의하면 주체사상은 철학적 원리, 사회역사원리, 지도원칙 등으로 구성된다. 철학적 원리는 일명 ‘사람중심의 철학’으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사회역사원리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논리이다. 지도원칙은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혁명적 수령관’이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등을 동시에 수령의 절대화 또는 인민대중의 비주체화·비자주화를 합리화하는 논리적 도구는 비판을 받고 있다(다음백과).

9) 『주체문학론』에서 제시하는 아동문학의 창작원리를 서동수(2005)에서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아동의 시점에서 형상화 할 것 ②아동의 특성에 맞게 형상화 할 것 ③아동의 높은 정신상태에 맞게 창조할 것 ④수령과 당에 충성과 효성하는 모습을 그릴 것 ⑤조직성과 집단주의 정신을 반영할 것 ⑥주체혁명 위업의 계승자임을 보일 것 ⑦우리식 문학으로 발전시킬 것 ⑧재미있을 것 ⑨행동성과 운동감을 그릴 것 ⑩쉬운 말과 표현을 쓸 것 ⑪순결한 마음을 그릴 것 ⑫수령의 혁명역사를 그릴 것 ⑬내용과 형식을 다양화 할 것 ⑭문학창작의 일반적 요구를 구현할 것 ⑮진실성과 독창성을 그릴 것.

다보니 계급교양이나 반계교양과 같은 주제를 담지 못한다는 점에서 청소년 영화와는 다르다(전영선, 2014: 23)고 한다. 실제 북한의 동화도 이러한 경우는 흔히 보여서 남한에서 북한의 동화가 출간되어 무리 없이 유통되는 것도 가능해 보인다. 그렇지만 북한의 창작 동시는 대부분 북한 정권에 대한 찬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교육 내용으로 선정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다 깊이 있는 탐색으로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북한의 아동문학 장르 중에서 남한의 장르명과 다른 부분으로 첫 번째는 ‘우화’를 들 수 있다. 남한에서 우화는 아동문학의 장르명이라기 보다는 동식물을 의인화한 이야기 전반을 일컫는 말이다. 그에 비해 북한은 같은 뜻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동화’와 대립되는 ‘우화’ 장르를 따로 설정할 정도이다. 이는 남한에서 동화 가운데 우화적 기법으로 형상화된 작품을 이르는 정도를 넘어 북한에서는 ‘우화’를 별도의 장르로 설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의 아동문학에서 사용하는 장르 용어 연구 성과(이재철, 2007: 170)에도 장르명에서 남한의 아동문학 장르 분류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 발행된 다수의 아동문학 작품집은 ‘우화집’, 혹은 ‘그림 우화집’, ‘동화집’이라고 명명한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우화집 밑 빠진 독』(문영철·박화준·리완기·서영철, 2014), 『그림우화집 여우가 놓은 다리』(변균일·편재순·김원태, 2003) 등과 같은 형태가 많다. 또 작품집 내에서 개별 작품의 장르를 구분하여 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동화’와 ‘우화’를 분리하여 제시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선아동문고10 - 웃음의 동산』(박춘선·한명신, 2010)의 차례를 살펴보면 ‘동화’ 작품을 앞부분에 19편 제시하고, 이어서 ‘우화’ 작품을 43편 제시하는 순으로 편집되었다. 이는 북한에서는 동화 작품과 우화 작품을 엄격히 분리하여 창작하고 감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북한에서 동화와 우화의 구분 근거는 그리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최근 발행된 북한 『동화집 은빛 반지』(박찬수, 2017)에는 『조선

아동문고10-웃음의 동산』(2010)에 동화로 제시된 「호박속에서 자란 토끼」는 남한의 용어로 지칭하자면 우화에 해당한다. 호박과 토끼가 주인공인 의인화된 동식물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우화가 아닌 동화로 분류되어 편집한 것을 보면 우화와 동화의 구분이나 우화의 개념이 남한에서 사용하는 의미역을 넘어서는 다른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문예이론서에 따르면 북한의 동화와 우화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다른 장르이다. 우화와 동화는 모두 상징적 성격을 등장시킨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동화는 환상적 성격이 강한 반면, 우화는 의인화된 주인공을 통한 비판과 교훈적 특징을 가진다.

동화는 새것에 대한 지향과 탐구심, 환상을 즐기는 아이들의 심리정서적특성에 맞게 생활을 개작하여 동화적 무대우에서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끌고나가는 설화적 방식의 산문이다. 동화적인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서사적 주인공은 환상적 세계에서 개작된 동화적 주인공 즉 상징적 성격을 체현한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중략)- 우화는 복잡한 사회현실과 인간관계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는 가장 가깝고 익혀진 자연 및 동식물 세계에 가탁하여 의인화된 주인공의 형상을 창조한다. -(중략)- 우화는 짧고 간단한 이야기문학으로서 의인화된 형상을 통하여 그릇된 것을 일깨워주거나 비판하면서 심각한 교훈을 추구하게 된다.(리동원, 1990: 97-98)

우화는 의인화된 형상으로 부정적 인물을 등장시켜 해부하며 비판성을 실현하며 교훈성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는데 동화와는 다른 장르이고 하위 장르로 보기에든 어려운 점이 있다.

즉, ‘동화시’와 ‘우화시’의 문제가 이와 관련이 있다. 남한 아동문학에서는 ‘동화시’라는 용어를 흔히 사용하며 주로 동시의 하위 장르로 본다. 이는 이재철(2007)의 연구 결과에서 보듯 북한의 동화시를 동시의 하위 장르로 자연스럽게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백석의 동화시들은 북한 아

동문학이고 그 중 ‘개구리네 한술밥’은 남한의 교과서에 실린 북한 아동문학이고 남한의 독자는 동시의 하위 장르인 동화시로 의미화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장르 개념에 따르면 백석의 동화시들은 동시가 아니고 우화시이며 이들은 동화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 아동문학 도서의 편집에서 발견되는 것은 동화시를 동화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조선아동문고10 - 웃음의 동산』(2010)의 동화 부문19편 가운데에는 ‘동화시 - 은하수조롱박’(손병민)이 게재되어 있다. 이 동화시는 이야기를 시적 율격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한에서 사용하는 ‘동화시’ 장르 개념에 부합하다. 다만 북한에서는 동화시를 동화의 하위 장르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이를 더욱 확고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우화집에 실린 우화의 형태이다. 같은 책의 ‘우화’ 부문에 수록된 우화들 가운데에서 ‘혼자가던 졸졸이’(로병수), ‘쥐가 넓힌 굴’(김의훈), ‘오른팔과 왼팔’(김박문), ‘소나무와 겨우살이’(황령아),¹⁰⁾ ‘왕밤나무와 알락다람이’(리순복), ‘인심쓰던 너구리’(박찬수), ‘짧은

10) <표 2> ‘소나무와 겨우살이’(황령아)

우화 소나무와 겨우살이 황령아	
산에 들에 흰눈이 쌓이고 찬바람 뽁뽁 불어치는데 뿌리를 더 깊이깊이 내리느라 소나무 애쓰네 밤나무가지에 붙어사는 겨우살이 소나무 건너다보고 하는 말 《생이란 참 모르겠거든. 자네는 살려고 아득바득 나는 남의 덕에 흥얼흥얼 그래도 이 겨울에 푸르른건 나나 자네나 마찬가지로 그래.》 그러자 소나무 한마디 했네 《푸르다고 다 같은건 아니지.》 243	그러던 어느날 숲속에 북풍이 몰아치고 눈사태 일어났네 나무들은 휘청거리고 밤나무는 가지 부러졌네 그 가지에 붙어살던 겨우살이 허리꺾여 눈속에 처박혔네 그제서야 소나무 다 못했던 말 마저 했네 《남의 덕에 편히 살땐 좋아보여도 제 뿌리 없이야 언제 어떤 변 당할지 모르지.》 주체76(1987)년 244

것이 《류행》(김형운)외 여러 편은 모두 ‘우화시’이면서 ‘우화’로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화집 『밑 빠진 독』(문영철 외, 2014)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우화집이지만 우화시의 형태를 보이는 작품이 더 많이 수록되어 있다. 짧은 산문 형식의 우화가 31편인데, 우화시 형태는 55편이다. 또 이재복이 엮어서 남한에 소개한 북한의 고학년용 창작동화 속에도 ‘우화시’ 형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바, 북한의 ‘동화시’ 혹은 ‘우화시’는 동시 장르의 하위 장르이기보다는 동화의 하위 장르라는 점이다. 특히 이들 ‘동화시’와 ‘우화시’가 내용 면에서 북한에서 ‘동시’로 소개되는 작품들과 다른 점은 김일성이나 김정은 등 원수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북한의 동시집에 수록된 대부분의 동시나 동요 작품은 삶의 전반적 정서에 대해 노래하면서 북한 지도자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귀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논의할 장르명 가운데 남한에서 흔히 ‘만화 영화’ 혹은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리는 장르가 북한에서는 ‘아동영화’, ‘그림영화’, ‘만화영화’라고 불린다. 북한에서 아동영화의 하위 장르는 ‘만화영화’, ‘인형영화’, ‘지형영화’ 등(전영선, 2014: 22)이 있는데, 남한에서는 만화영화는 아동영화만이 아니라 성인영화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라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책’이라는 용어도 남북에서 그 의미역을 달리하고 있다. ‘그림책’이라는 용어는 남한에서는 그림으로만 혹은 그림과 약간의 글로 서사를 진행하는 그림동화와 정보를 전달하는 그림책 등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북한의 자료들에서는 대체로 ‘만화책’이 많고, 그림과 글로 서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림의 역할이 서사를 보조하는 삽화 차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남북에서 그 의미의 차이를 다소 크게 보이고 있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 미세하지만 아동문학 장르 용어의 차이가 확인된다. 공통국어의 내용 선정과 교과서 설계에서 남북의 아동문학 장르 용어에 대한 차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문학 교육 내용 영역 설정

남북한 공통국어 과목에서 문학 영역의 교육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특히 남한과 북한의 사회문화적 차이 및 동질성이 그대로 문학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문학 작품을 통한 상호소통은 창의적사고역량은 물론이고 상호문화역량과 통일역량, 그리고 평화역량을 기르는 데에 핵심적인 활동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문학 작품을 통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문학작품을 통한 사회문화적 가치의 차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문학작품에 드러나는 언어공동체로서 누리고 있는 삶의 동질성에 대한 경험은 통일역량과 평화역량을 기르고 상호문화성을 알고 실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에 공통국어에서 깊이 있게 고민하여 준비하여야 할 부분이다.

남한과 달리 현재 북한의 소학교(초등학교) 교육과정에는 문학 영역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¹¹⁾ 물론 문학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이 읽기 및 쓰기, 듣기, 말하기, 글짓기 영역에 고루 포함되어¹²⁾ 있다.

11) 현재 북한의 소학교 교육과정에서는 ①글자교육, ②읽기 및 쓰기, ③듣기, ④말하기, ⑤글짓기, ⑥글씨쓰기, ⑦기초원리 지식 ‘내용 분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12) 북한의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교육 내용에서 추출한 문학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야기(500~600자 정도)와 해설(700~800자정도)을 듣고 요점, 론거, 원인과 결과를 알수 있도록 한다.
- 들은 내용에서 느낀 것, 상상한 것등을 말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림, 읽은 책, 영화의 내용이나 느낀점을 구체적으로 감정을 살려 형상적으로 말할수 있도록 한다.
- 이야기글에서 장면밖의 내용을 상상하여 말할수 있도록 한다.
- 단어, 표현(2~3대 정도)을 넣어 짧은 글을 3문장 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
- 옮겨짓기, 연속그림글짓기(3~4장면)를 할수 있도록 한다.
- 대화, 사실, 장면을 상상하여 2개 문장이상 보태쓸수 있도록 한다.
- 이야기가 벌어진 시간과 순서에 따라 글의 차례를 세우고 내용을 논리에 맞게 전개하여 쓸수 있도록 한다.
- 묘사글과 쪽지글(안내, 초대, 부탁, 알림, 물음, 축하 등)을 쓸수 있도록 하며 이야기글,

공통국어의 교육 내용 영역 설정은 기존의 국어교육 관행을 그대로 따른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지향점을 강조하여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을 마련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존의 국어과 교육 내용 영역을 그대로 가져오게 된다면 남북 대표단의 협의만 필요하지만, 창의적 사고 역량, 평화역량, 상호문화역량과 통일역량을 강조하여 새로운 틀을 구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존 남한의 다섯 영역 체제의 내용 구성이 가진 장점은 모든 영역의 교육 내용을 깊이 있게 체계화하여 마련한다는 점이지만, 그로 인한 교육 내용의 분절성은 교과서나 교사의 융합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한 면도 있다. 통일국가 시대의 맥락을 더욱 강조하여 교육 내용을 맥락중심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내용 영역 구분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IV. 맺음말

통일국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남북한 공통국어’ 교과를 상정하고 그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였으며 초등 문학교육을 중심으로 그 내용 선정의 쟁점과 과제를 탐색하였다.

우선 ‘남북한 공통국어’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통일국가시대 국어교육의 방향으로 네 가지 강조할 역량을 설정하였다. 우리말글 공동체로서 새 문화 창조를 위한 역량으로 ‘창의적 사고역량’, ‘평화역량’, ‘상호문화역량’의 세 가지를 설정하였다. 또 남북의 문화충돌 완화를 위한 국어능력

일기, 편지, 감상글, 해설글을 10개문장이상, 동요, 동시를 3개 편이상을 지을수 있도록 한다.

으로 강조되어야 할 ‘통일역량’을 설정하였다.

‘공통국어’의 초등 문학 교육 내용 선정의 쟁점과 과제로 강조되어야 할 네 가지 역량의 초등 국어교육적 편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아동문학 제재 선정에서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선정의 쟁점과 과제, 아동문학 장르 용어의 개념 차이와 사용의 문제, 문학교육 용어의 문제, 문학 교육 내용 영역 설정의 문제와 해결 과제를 탐색하였다.

앞으로 통일국가를 이루었을 때의 상황맥락에 맞는 국어 역량을 보다 구체화하는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국어 능력이 그러한 역량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요소들이 그러한 역량을 기르는 데에 기여할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 초등 문학 교육의 여러 쟁점들과 과제를 해결해나갈 구체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 북한의 아동문학의 장르 및 내용 특성에 대한 이해가 구체화되어야 하고 남북의 아동문학 독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며, 분단 시대의 아동문학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도록 교육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 본 논문은 2020.1.27. 투고되었으며, 2020.2.19. 심사가 시작되어 2020.3.5.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강보선·권순희·주재우·정진석·김진숙(2017), 「남북한 초등학교 문법교육 내용 비교-남한의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북한의 2013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대상으로」, 『우리말 글』 72, 31-65.
- 교육도서출판사(2014), 『북한 소학교 3-1 국어 교과서』, 평양: 교육도서출판사.
- 교육위원회(2013), 『제1차 전반적 12년제무교육강령(소학교)』, 교육위원회 주체 102(2013)년.
- 다음백과, 주체문예이론, 검색일자 2019. 11. 22., 사이트 주소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9j3705n0>.
- 다음백과, 주체사상, 검색일자 2019. 7. 15., 사이트 주소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19j3704a>.
- 리동원(1990), 『작품의 주인공』, 평양: 문예출판사.
- 문영철·박화준·리완기·서영철(2014), 『우화집 밑빠진 독』,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 박보영(2009), 「평화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의 탐색」, 『교육사상연구』 23(1), 1-16.
- 박찬수(2017), 『은빛 반지』,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 박춘선 편집·한명신 그림(2010), 『웃음의 동산』, 평양: 금성청년출판사.
- 변균일, 편제순 편집, 김원태 그림(2003), 『그림우화집 여우가 놓은 다리』,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 서동수(2005), 「북한 아동문학의 장르인식과 형상화 원리」, 『동화와 번역』 9, 87-114.
- 이재철(2007), 『남북아동문학연구』, 서울: 박이정.
- 전영선(2014), 『북한 애니메이션의 특성과 작품정보』, 서울: 도서출판 선인.
- 주재우·권순희·강보선·정진석(2017), 「남북한 초등학교 쓰기교육 내용 비교」, 『작문연구』 33, 95-115.
- 진선희(2019), 「통일국가시대 초등 국어과 제재로서 일제강점기 전래동화 연구」, 『아동청소년 문학연구』 25, 407-455.
- 진선희(2016), 「남북한 국어과 교과서 전래동요 수록 양상 및 공통 유형 탐색」, 『새국어교육』 109, 351-387.
- 통일교육원(2019), 『2019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 Jeong, Jin-seok ·Kang, Bo-sun ·Kwon, soon-hee, ·Joo, jae-woo(2017), "Comparison of the Contents of Elementary School Curricula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Focusing on the 2015 Revised Korean Curriculum of South Korea and the 2013 Revised Korean Curriculum of North Korea",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21(3), 197-205.

‘남북한 공통국어’ 교육 내용 선정의 쟁점과 과제

—초등 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진선희

통일국가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남북한 공통국어’ 교과를 상정하고 그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였으며 초등 문학교육을 중심으로 그 내용 선정의 쟁점과 과제를 탐색하였다.

우선 ‘남북한 공통국어’ 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기 위하여 통일국가시대 국어교육의 방향으로 네 가지 강조할 역량을 설정하였다. 우리말글 공동체로서 새 문화 창조를 위한 역량으로 ‘창의적 사고역량’, ‘평화역량’, ‘상호문화역량’과 남북의 문화충돌 완화를 위한 국어능력으로 강조되어야 할 ‘통일역량’을 설정하였다.

‘공통국어’의 초등 문학 교육 내용 선정의 쟁점과 과제로 강조되어야 할 네 가지 역량의 초등 국어교육적 편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아동문학 제재 선정의 쟁점과 과제, 아동문학 장르 용어 및 문학교육 용어의 문제, 문학 교육 내용 영역 설정의 문제와 해결 방향을 탐색하였다.

핵심어 통일시대, 남북한 공통국어, 평화역량, 창의적사고역량, 상호문화적역량, 통일역량, 문학 교육, 아동문학

Exploring the Issues and Tasks for the Selection of Educational Contents for the “Common Korean Language of South & North”

—Focusing on Literature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Jin Sunhee

This study aimed to explore the issues and tasks in selecting educational content for the “Common Korean Language of South & North.” I considered three “capacities” which will be the directions of the common Korean language in the United Nation. These are the creativity capacity, the peace capacity, and the intercultural capacity. I suggested the unity capacity as the means to ease the cultural collis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The tasks that we must carry out to develop the common curricula include the following: organizing the four capacities in the curriculum of common Korean language; selecting the themes of children’s literature; uniting the terms of the children’s literature and literature education; and developing the contents of literature education.

KEYWORDS Unification Era, Common Korean Language of South & North, Creativity Capacity, Peace Capacity, Intercultural Capacity, Literature Education, Children’s Literature